

특 집

2005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사업 추진 경과 및 평가¹⁾

1.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추진 경과

◎ 2005년 3월 2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관계자(김신일 교수, 이권우 도서평론가, 정용실 아나운서, 이용훈, 서울문화재단 이진왕 부장 등 담당자) 모임에서 '2004 책 읽는 서울' 사업을 평가하고, 2005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한 책 읽기 운동'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

◎ 이후 사업 준비에 여러 번의 변경이 있었음. 4월 23일 정독도서관에서 서울문화재단 주관의 낭독 프로그램 실시.

◎ 7월 7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실무자 대상 워크숍을 정독도서관에서 개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으로의 변용의 의미와 중요성, 향후 추진주체의 역할과 운동 방향 등에 대해 언급함. 서울문화재단의 지원 방식에 대한 설명도 있었음.

◎ 7월 21일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지원' 신청 접수 공지. 총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획력을 평가해서 우선 선택, 집중적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함.

◎ 접수결과 총 20개 도서관이 신청. 8월 12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 총 20개관 중

1) 본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행할 예정인 최종보고서에 수록될 내용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이해를 구하여 본 지면에 실는 것이다. 각 도서관별 자세한 활동 내용은 추후 발행될 서울문화재단의 최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글 :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

에서 실제 한 책 읽기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4개관을 제외한 16개관을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함. 그 결과는 8월 19일 공지함.

〈심사 결과 공지문〉

2005년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지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으로 2005년 책 읽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서관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8월 5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0개관이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심사위원회에서 기획의도와 사업내용,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16개관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각 등급별로 지원신청금액에 관계없이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나 본 사업의 취지를 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4개관은 지원요청을 한 사업 내용은 좋은 독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금번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라는 본 사업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16개 도서관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사기준〉

- 1)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기획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2) 지원신청서를 참고하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의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A, B, C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함

〈심사 결과 : 총 16개관 지원 결정〉

- 1) 최우수 (1개관, 500만원) : 어린이도서관
- 2) A등급 (4개관, 각 300만원) : 마포평생학습관, 광진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강동도서관
- 3) B등급 (7개관, 각 150만원) : 강남도서관, 도봉도서관, 강서도서관, 구로도서관, 관악문화관도서관, 정독도서관, 동대문도서관
- 4) C등급 (4개관, 각 100만원) : 서대문도서관, 중계평생학습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심사평〉

1. 대체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기획에 머물렀다. 한 책 읽기 운동은 도서관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승패를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 소모성 비용을 줄이고, 시민과 더불어 벌이는 책 축제의 성격에 우선적으로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3. 토론회가 무척 적게 잡혀있다는 것과 연관된 단체(학교, 독서운동단체, 독서클럽 등)와 네트워킹을 충분히 추진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
4. 실질적인 지원액을 높이기 위해, 함께 읽기로 선정된 한 권의 책을 구입해 시민들에게 나누어줄 스폰서(후원자)를 구해보는 것을 권고한다.
5.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추진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향후에는 한 책 읽기에 적합한 사업 기획과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주면 좋겠다.

〈심사위원 명단〉

이권우 도서평론가,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홍선희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 이건왕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이상 5명)

2005년 8월 19일

- ◎ 서울문화재단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책 읽는 서울 2005 <1도서관 1책읽기> 사업 위탁 계약 체결 (총 사업비 3,500만원)
- ◎ 8월 29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16개 참여 도서관에 지원금 송부. 그 과정에서 각 도서관별로 지원금에 맞추어 사업의 규모나 내용 일부 조정을 요청하였음.
- ◎ 9월부터 각 도서관별로 사업 추진 (12월 초까지 진행)
- ◎ 10월 16일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한 '책 읽는 서울광장 도서관' 행사에 16개관이 선정한 책에 대한 홍보자료 및 배너, 정독도서관의 일일 이동도서관 운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 11월 18일 중간 평가 세미나 개최

- 장소 : 정독도서관 시청각실
- 주최 :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 후원 : 서울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 참석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사업추진 관계자, 도서관직원 등 130여명
- 세미나 내용
 - 기초연설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 이용남 한성대학교 교수
 - 제1주제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의 중간 평가
 - ▶ 주제발표 :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 ▶ 지정토론 : 박진순 성동문화정보센터 관장
홍순영 고덕평생학습관 과장
 - 제2주제 :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활성화 방안
 - ▶ 주제발표 : 이만수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 지정토론 : 조정화 성북정보도서관 관장
정혜경 남산도서관 사서
 - 사회 : 임윤철 정독도서관 과장

- ◎ 12월 26일 한국도서관협회가 각 도서관별 사업결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서울문화재단에 제출 (지원금 35,000,000원 중 34,728,560원 집행)

2. 사업 진행 평가

1) 대상 도서 선정

- ◎ 전체적으로 무난한 선정이었다고 생각함. 다만 전체 16개관 중 4개관을 제외한 12개관

이 어린이용 도서를 선정하고 있어 성인들의 참여를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층은 각각 2개관에서 선정되었음. (아래 표 참조)

| 도서관명 | 책이름 | 저자 | 출판사 | 도서관명 | 책이름 | 저자 | 출판사 |
|-----------|-------------|-----|--------|----------|-----------|-----|------|
| 강남도서관 | 나비 | 안도현 | 리즈엔북 | 도봉도서관 | 마당을 나온 암탉 | 황선미 | 사계절 |
| 강동도서관 | 문학의 숲을 거닐다 | 장영희 | 쌤터사 | 동대문도서관 | 지엠오아이 | 문선이 | 창비사 |
| 강북문화정보센터 | 영모가 사라졌다 | 공지희 | 비룡소 | 마포평생학습관 | 국자이야기 | 조경란 | 문학동네 |
| 강서도서관 | 아홉살 인생 | 위기철 | 청년사 | 서대문도서관 | 영모가 사라졌다 | 공지희 | 비룡소 |
| 관악문화관도서관 | 백지애인 | 신달자 | 자유문화사 | 아리랑정보도서관 | 마당을 나온 암탉 | 황선미 | 사계절 |
| 광진구립정보도서관 |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 안미라 | 창비사 | 어린이도서관 | 토끼전 | 이혜숙 | 창비사 |
| 구로도서관 | 칼의 노래 | 김훈 | 생각의 나무 | 정독도서관 | 문제아 | 박기범 | 창비사 |
| 금천구립정보도서관 | 가시고기 | 조차인 | 밝은세상 | 중계평생학습관 | 유진과 유진 | 이금이 | 푸른책들 |

※ 도서관명에서 **굵은 글씨** 는 성인용 도서를 선정한 도서관임, 책이름에서 **굵은 글씨**는 2곳에서 선정된 책임.

◎ 일부 도서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책으로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책이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 도서 선정에 있어 기준이라든가 선정과정에서의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이는 아무래도 사업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선정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책 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함께 읽을 책을 제대로 고르는 것인 만큼 부족한 일정 가운데서도 좀 더 공개적이거나 또는 토론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임.

◎ 예를 들어 아리랑정보도서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원칙에 따라 선정된 5권의 책을 공지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에 반영한 것은 향후 다른 도서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임.

◎ 한 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한 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한 책만 읽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등)가 사업 후 도서관(실무자)에서 제기되기도 했음.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한 책 읽기'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좀 더 접근하도록 해서 사업의 취지와 의미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임.

물론 한 책 읽기의 근본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연령별로 구분(성인용, 청소년용, 어린이용 등)해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임.

〈아리랑정보도서관의 대상 도서 선정 사례〉

아리랑정보도서관은 독서전문가와 학교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책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5권의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리랑과 함께하는 한 권의 책」 선정기준

1.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책
 2. 내용이 도덕적, 정서적으로 건전한 책
 3. 활발하게 토론하기 좋은 책
 4.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책
 5. 신간보다는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책
 6.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목록으로 선정된 책
 7. 작가와의 만남, 연극, 영화,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책
- 5권의 책 중 「아리랑과 함께하는 한 권의 책」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장소 : 아리랑정보도서관 안내데스크 한책홍보코너

* 후보도서 *

- ① (나무로 깎은)책벌레 이야기
- ② 등무생각
- ③ 마당을 나온 암탉
- ④ 모래알 고금
- ⑤ 무기 팔지 마세요



2) 주요 프로그램

◎ 각 도서관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한 프로그램의 종류는 아직 그렇게 다양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 이 또한 충분한 기획과 준비 시간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됨.

◎ 각 도서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홈페이지, 사업정산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음.

| 프로그램 | 실시 도서관 | 실시관수/비율 | | 비고 |
|-------------------|--|---------|-------|---------------|
| 독서토론회 | 어린이, 마포, 아리랑, 강동, 광진, 강남, 도봉, 강서, 구로, 동대문, 서대문, 중계, 강북 | 13 | 81.3% | |
| 작가와의 대화/토론, 강연회 등 | 어린이, 마포, 아리랑, 광진, 강남, 도봉, 강서, 구로, 동대문, 관악, 서대문, 중계 | 12 | 75.0% | 강서는 다른 작가를 초청 |
| 워크북 제작 | 어린이, 아리랑, 강남, 중계, 강북 | 5 | 31.3% | |
| 독서토론 훈련 | 어린이, 강남, 광진 | 3 | 18.8% | |

| 프로그램 | 실시 도서관 | 실시관수/비율 | | 비고 |
|-----------|--|---------|-------|----|
| 전시회/영상상영회 | 어린이, 마포, 아리랑, 강동, 광진, 강남, 도봉, 강서, 구로, 서대문, 강북 | 11 | 68.8% | |
| 각종 공모전 | 어린이, 아리랑, 강동, 광진, 강남, 강서, 구로, 정독, 동대문, 서대문, 강북 | 11 | 68.8% | |
| 책 만들기 | 어린이, 아리랑, 서대문, 금천, 중계 | 5 | 31.3% | |
| 독서퀴즈대회 | 어린이, 광진, 강남, 강서 | 4 | 25.0% | |
| 독서 릴레이 | 어린이, 강동, 광진, 동대문 | 4 | 25.0% | |
| 각종 공연 | 어린이, 마포, 강남, 강서, 중계 | 5 | 31.3% | |
| 낭독회 등 | 강동, 강남 | 2 | 12.5% | |

◎ 한 책 읽기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토론과 직접 관련있는 프로그램 중 독서토론회는 대부분의 도서관(81.3%)이 실시하고 있으며, 작가 강연회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음(75%). 그러나 토론 활성화를 위한 워크북 제작(31.3%)이나 토론훈련 프로그램(18.8%)은 일부 도서관만이 기획,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독서토론의 경우, 본 사업의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도서관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업 추진에 있어 독서토론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독서토론 능력 향상이나 워크북 제작 등을 위한 실무자 교육 등은 개별 도서관이 아닌 전체 사업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국도서관협회나 서울문화재단이 독서토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도서관에 보급하거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실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특별한 프로그램도 여럿 실시되어 향후 최종 평가 단계에서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정리한다면 향후 각 도서관에서의 한 책 읽기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됨. [예 : 가족과 함께 만드는 워크북(어린이도서관), 참가 스티커 모으기(광진구립정보도서관), 책나무 키우기(강서도서관), 독서토론 참가자에 대한 혜택 부여(구로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어르신 등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활용(강남도서관) 등]

3) 홍보 상황

◎ 현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한 홍보는 개별 도서관에 의존한 상황임. 준비나 실행에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도서관들의 홍보노력은 매우 컸다고 생각함.

◎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 결과, 한 책 읽기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과 별도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곳이 각각 1개관(강동도서관, 구로도서관), 팝업을 통해 직접 공지사항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일부에 그치고 있

을 뿐임. 대부분은 공지사항에 한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사실만을 간단하게 알리고 있거나, 개별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내용 게시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이나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함. 서울문화재단은 10월 1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리플렛 형식의 홍보자료 1건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으며, 16개관의 선정도서를 알리는 배너 16개를 제작해서 활용한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다만 리플렛의 경우에는 제작과 배포가 늦어 실제 도서관에서 사업 홍보에 적절하게 사용하기에는 큰 제한이 있었음.

◎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이나 한국도서관협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4) 지역주민 참여

◎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라서 구체적인 지역주민 참여 상황이나 평가를 접하기는 어려웠음. 각 도서관에서는 각 프로그램 추진 후 평가과정에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와 수준과 참여자 입장에서의 평가를 파악해야 할 것임.

◎ 일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음. 그 내용은 대체로 한 책 읽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음.

〈강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사례〉

이름 장영희
제목 〈문학의 숲을 거닐다〉 저자입니다.

강동도서관에 오시는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의 숲을 거닐다'의 저자 장영희입니다.
담당자로부터 제 책이 한 책 읽기 대상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제 책을 읽어주고, 좋아해서 '뽐아준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도 받았지만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이익선씨가 더욱 아름답게, 의미있게 읽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다음 기회에는 꼭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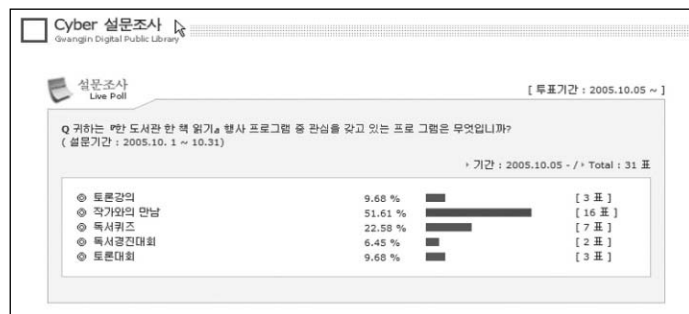
작성시간 : 2005.10.10 / 12:53

이름 짜라
 제목 [답글] <이익선>씨와 함께 한 <한책읽기> ~

가을이 시작하는 시월초 좋은 날에,
 한강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과 산으로 달리고 싶은 생각을 잡아 준
 <강동도서관>의 <한책읽기>는 내가 읽은 책을 남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느끼게 하는 참신한 행사였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이익선>씨와 준비에 빈틈이 없으신 도서관 사서선생님들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책읽기가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지만, 인생을 늘여 줍니다.
 ^*^



<광진정보도서관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행사 관련 설문조사 (인용 2005.10.23. 13:30)>

3.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중간평가 시)

◎ 16개 참여 도서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간평가 워크숍을 위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의 진행과 성과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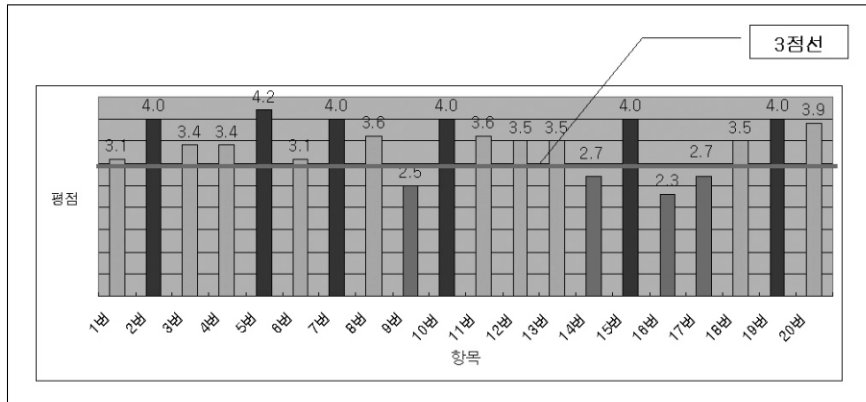
◎ 조사개요

- 대상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참여 16개관 실무자 16명
- 기간 : 2005.10.19.-21. (응답자가 적어 10.23.까지 연장)
- 조사내용 : 사업 추진 및 실제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 등에 대한 내용
 (객관식 20개, 주관식 5개 문항)
- 응답자수 : 10명 (응답률 62.5%) (2005.10.24. 현재)
- 응답자 특성 : 관리자/실무자(1/9), 종류 : 도서관/평생학습관(9/1),
 소속 : 지자체/교육청(3/7), 성별 : 여성/남성(9/1)

◎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응답점수에서 1점은 '전혀 아니다', 2점은 '아니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임)

| 번호 | 조사항목 | 응답 점수 | | | | | 평점 |
|----|--|-------|---|---|---|---|-----|
| | | 1 | 2 | 3 | 4 | 5 | |
| 1 | 귀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을 담당하기 전에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 2 | 2 | 5 | | 3.1 |
| 2 | 귀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참여하면서 서울문화재단이 개최했던 워크숍이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3 | 4 | 3 | 4.0 |
| 3 | 이번에 한국도서관협회 사업을 지원한 방식인 가급적 많은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에 대한 지원금이 적은 것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 4 | 5 | | 3.4 |
| 4 | 이번에 지원한 20개 도서관 중 16개관을 지원했는데, 차라리 몇 개 도서관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 2 | 2 | 6 | | 3.4 |
| 5 | 이번에 지원한 금액이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 | 6 | 3 | 4.2 |
| 6 | 실제 진행을 해 보신 경험으로 보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 4 | 2 | 1 | 3.1 |
| 7 | 책 한 권을 선정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 | | 2 | 6 | 2 | 4.0 |
| 8 | 책을 선정할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 3 | 5 | 1 | 3.6 |
| 9 | 지역주민들이 책을 읽고 토론에 잘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 4 | 4 | 1 | | 2.5 |
| 10 | 귀하의 도서관에서는 이번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 | 3 | 4 | 3 | 4.0 |
| 11 | 이번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도서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6 | 2 | 2 | 3.6 |
| 12 | 이번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독서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6 | 3 | 1 | 3.5 |
| 13 | 행사 진행 이후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호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 4 | 4 | 1 | 3.5 |
| 14 | 행사 진행 이후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더 많이 읽고, 대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3 | 7 | | | 2.7 |
| 15 | 행사 추진과정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까? | | | 3 | 4 | 3 | 4.0 |
| 16 | 행사 추진과정에서 도서관 이외의 기관(구청, 교육청, 시민단체나 지역내 기업 등)의 도움이나 참여가 많았습니까? | 1 | 6 | 2 | 1 | | 2.3 |
| 17 | 행사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적극 지원하고 도움을 주었습니까? | | 4 | 5 | 1 | | 2.7 |
| 18 | 이번 행사 추진에 한국도서관협회나 서울문화재단이 잘 도와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6 | 5 | 1 | 3.5 |
| 19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 3 | 1 | 5 | 4.0 |
| 20 | 내년에도 귀 도서관에서는 이 행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 1 | 3 | 2 | 4 | 3.9 |



◎ 5점 만점에 3점(그렇다)을 평균점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평균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항목은 다음의 4개임. 실무자로서 한 책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기관들의 참여나 지원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하였음.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도서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9. 지역주민들이 책을 읽고 토론에 잘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4. 행사 진행 이후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더 많이 읽고, 대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6. 행사 추진과정에서 도서관 이외의 기관(구청, 교육청, 시민단체나 지역내 기업 등)의 도움이나 참여가 많았습니까?
- 17. 행사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적극 지원하고 도움을 주었습니까?

◎ 평균 4점을 넘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5가지임. 사전 워크숍과 지원금 지급이 그 방식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었다고 할 것임.

- 2. 귀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참여하면서 서울문화재단이 개최했던 워크숍이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5. 이번에 지원한 금액이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귀하의 도서관에서는 이번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15. 행사 추진과정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까?
- 19.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정적 질문에 4점 이상의 평가를 한 항목은 1가지였음. 역시 한 책 읽기의 핵심인 책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음.

7. 책 한 권을 선정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관식 5개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대체로 '한 책 읽기 운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과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관련 전문가의 지원 체계 등의 구축이 제안되었음.

21. 이번 행사 추진에서 힘들었던 점을 적어주십시오.

- 담당자 인사이드로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이 좀 늦어졌으며 홍보를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음. 폭넓은 홍보부족으로 행사개최를 충분히 알리기 어려웠음.
-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하나 도서관 홈페이지, 안내장 등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큰 미디어 등 광범위한 홍보를 할 수 없었던 점.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서 정하기, 예산부족으로 이용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 경험이 많지 않아 토론회 진행이 어려웠음.
- 연초에 예산이 확실히 편성되면 업무계획 및 진행이 좀 더 완벽하게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됨.
- 뒤늦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사전 세미나의 미참석으로 인하여 행사추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방향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 잘 알려진 작가가 아니어서 강연회 참석자 확보가 어려웠으며, 토론회 진행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내년부터는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역에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인지도가 낮아 행사 참여 인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 지역의 단체와 학교와의 관계형성이 너무 필요하다.
- 처음이라 지역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았다. 사회적인 홍보가 선행되었으면 한다.

22.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역시, 시간 부족으로 다양한 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려웠음.
- “토론하기 적합한” 책을 고른다는 것이 원래의 행사의 목적과 맞지만 전체 기관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좋은 책”을 선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 대상 가능한 도서를 읽고 토론 가능한지 분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 짧은 행사시간으로 인하여 책선정에 대한 토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
- “좋은 책”과 “작가섭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힘들.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라 하여 한 책을 정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자들의 구성(학생, 청소년, 성인...)을 다 충족하기에는 선정할 어려운 점이 있음.
-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 그 중에 어느 계층을 표적으로 삼아 도서를 선정해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 토론 가능 작품에 가중치를 부여하다 보니, 작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거나, 반대로 지명도 높은 작품이나 작가는 여러 계층의 토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려웠습니다.
-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에 의해 선정하고 싶었는데, 호응이 적어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좀더 많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정되어야 할 것 같다.

23. ‘도서관 한 책 읽기’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올해 행사 추진 과정에서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사가 구상되고 계획되어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폭넓은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 9월 독서의 달과 겹쳐지는 경향이 있어 각각의 행사가 미흡해 질 수 있는 경향이 있음
- 비슷한 지역 도서관이 모여 “한 책”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같은 비용으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음. 인접한 지역 도서관이 모이므로 홍보효과가 커짐. 행사 담당자의 부담이 줄어들.
- 참여 범위를 지역단위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 참가자의 유대감 결여, 관청의 관심 결여. 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설명회 개최(구청, 구의회 등)
-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추진 상 문제점 등에 대한 담당자들 간의 사전 토의 부족. 추진 담당자들 간의 의견 교환 통로가 필요하다.
- 예산사용에 있어 지원한 기관에서의 제한(현수막, 홍보물 제작, 선정도서 구입)과 도서관 측에서의 본예산 기준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함으로 예산 집행 과정이 힘들.
- 연초에 미리 행사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행사가 추진되지 않았을까 함. 단시간의 홍보를 통한 한 도서관 한 책읽기 행사추진 결과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함. 이번 행사는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성격의 행사라고 생각함. 급하게 행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참여 및 결과를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됨.
- 10월 16일 서울공장의 하루 행사 보다는 각 도서관을 연계한 홍보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효과가 높을 것 같음. 또 이벤트 행사 등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함. 또한 효과적인 예산 책정이 경험 부족하여 미흡함. 아마 내년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음.
- 올해의 행사진행은 도서관에서는 갑자기 추진된 것으로 한해의 행사로 년초부터 체계적으로 시기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해야지 단 기간에 많은 행사를 추진하기는 힘든 것 같음.

24.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연간 행사로 자리잡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행사가 구상될 필요가 있음.
- 사서의 관심, 책 읽는 문화 정착,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사를 홍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 각 도서관에서 주요업무로 책읽기 및 독서토론회 지속적 운영
- 독서운동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은 도서관사업에 대한 관장 뿐아니라 관청의 의식개선. 본 운동의 본질적인 의미 파악 - 관청(중립적이며 도서관운동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경우), 독서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 구청장
- 한 도서관 끼리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부산처럼 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하여야만 지역주민 나아가 대국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봄.
- 선정된 책의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대대적인 홍보, 도서관직원의 열의, 더 많은 예산
- 지역과의 지속적인 유기적 관계 유지, 직원 모두의 이해를 위한 노력 등 만이 필수 조건이다.
- 사회적인 토론문화의 정착 분위기 조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각 도서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맡기기보다, 체계적인 계획 아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 등

25. 그 밖에 행사 실무자로서 행사 주관/지원기관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총괄 부서에서 "행사"에 관한 전체적인 홍보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각 기관에서 행사 기본취지에 대한 홍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행사시기가 꼭 가을이 아니라, 도서관·독서의 달 행사가 없는 여름에도 좋을 것 같음. (책읽는 분위기는 연중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므로)
- 예산을 늘려주면 좋겠음. 이벤트 지원
- 지원하기 전에 도서관과 사업계획에 대해 대화를 선행하였으면 좋겠음
-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인센티브주면서 주관하면 어떨까 함. 단 각 구별로 한편의 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단, 거점을 반드시 도서관으로 함. 좀 더 활발한 운동다운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함. 아니면 아예 사서 중심으로 한책읽기운동본부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함.
- 확정된 예산없이 사업을 단기간 내 계획하고 변경하는 과정이 어려웠음. 도서관이나 학습관별로 기존 사업과 감사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됨.
- "한 도서관 한 책읽기"의 한정된 행사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 여러 다양한 테마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만 지원하였으면 하는 바람.
- 타 도서관의 성공적인 사례를 알려주시면 좋겠음. 예산이 부족한 도서관에서는 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행사를 해야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관에서 지원 및 후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 효과적인 행사 진행 방법 안내 (행사진행자, 이벤트 행사 등의 정보 안내)
- 담당자들의 정보공유를 위하여 또 진행 중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모임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음.
-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음.

4. 개선 방안

◎ 중간평가 및 최종 사업정산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의 지속적이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사업 추진 방향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필요함. 올해까지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나 순천시의 경우 이 운동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대체로 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도서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문화 프로그램 기획 능력 향상, 워크북 제작 실무, 독서토론 진행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자발적이면서도 충실한 기획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

2) 개선 방안

◎ 사업 추진은 반드시 연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 2005년도 사업 추진이 늦어진 관계로 충실한 기획과 추진이 어려웠음. 따라서 매년 초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계획이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충실한 추진이 필요함.

◎ 사업추진 조직의 정비가 필요함.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실무자를 중심으로 상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할 것임. 올해 사업 종료 후 빠른 시일 안에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을 것임.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실무 지원을 담당할 사업지원팀(코디네이터)을 두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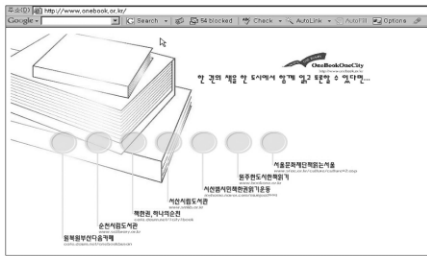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이외에도 지자체 또는 교육청 등의 사업재원 확보 및 민간 지원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 또한 각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도서관(실무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서관 실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사업추진 매뉴얼을 제작해서 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대상 도서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토론 유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함. 홍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함.

◎ 사업 추진 관련 행정 부서 담당자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강화 필요.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반드시 협력해야 할 행정 부서나 관련단체 관계자들에게도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 기회를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별 도서관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서울문화재단이나 한국도서관협회가 기획해서 서울시 또는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여러 도서관이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기반으로 한 공동 홍보 및 관련 자료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홍보 포스터는 사전에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현재 한국도서관협회가 확보한 도메인(<http://www.onebook.or.kr>)을 활용해서 전국적인 공동 홈페이지 구축이 부산시 원북원부산추진위원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이 작업에 서울문화재단 등도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실무적인 정보나 2005년 각 도서관 사업 성과 및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개막식보다는 폐막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2004년 폐막행사에 서와 같이 우수한 추진 도서관 또는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과 행사 실무자에 대한 시상은 물론 프로그램 성과의 전시나 각종 공연, 낭독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갖추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축제 마당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㉞



으로 한 공동 홍보 및 관련 자료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홍보 포스터는 사전에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현재 한국도서관협회가 확보한 도메인(<http://www.onebook.or.kr>)을 활용해서 전국적인 공동 홈페이지 구축이 부산시 원북원부산추진위원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이 작업에 서울문화재단 등도 참여하는 것이 좋을